會議를 誘致하기 잘했다

金 鍾 珠
〈(株) 우리코리아 會長
PBNC執行分科委員長〉

1. 太平洋沿岸國原子力會議(Pacific Basin Nuclear Conference, PBNC)의 性格

美國原子力學會(American Nuclear Society, ANS)가 처음 하와이에서 第1次 會議를 열었으며, 太平洋沿岸에 位置한 原子力産業 保有國間의 國際協力을 위한 것이 目的이었다. 그후 第2次 東京會議 부터는 開催國의 原子力學會와 ANS가 共同主催하여, 會議 性格의 一貫性을 維持하면서 開催國의 意圖도 反映되도록 하였다.

第1次부터 第4次까지의 發表內容을 보면 原子力發電과 그와 關聯된 技術과 政策, 放射性同位元素의 生産과 그 利用技術, 原子力發電의 安全性과 經濟性 等 多樣하며, 學術會議에 産業技術, 産業政策이 加味된 性格이다. 發表者·參加者의 分布도 研究所·電力會社·學界·政府機關 等 廣範圍하며, 參加人員은 第1次에서 第4次까지는 200名 乃至 350名 程度였으나, 第5次 서울會議에는 1,200名이 參加한 最大規模였다. 또 今般 서울 第5次 會議에서 처음으로 原子力展示도 併行하여 있은 것이 特色이었다.

2. 誘致經緯와 會議準備

元來 第4次 PBNC를 誘致하자는 여론이 原子力産業界와 學界에서 나타나기 始作하여, 韓國電力의 支援約束으로 具體的 協議가 始作된 것은 1981年 初부터였다. 마침 그해(1981年) 2月에 멕시코 아카풀코(Acapulco)에서 열린 第3次 會議에 參席한 우리代表들이 美國原子力學會에서 參加한 實務陣들에게 意思表示를 하고 協助를 要請했다. 미국원자력학회 친구들은 그렇다면 ANS年次冬季會議가 열리는 1981年11月, ANS산하의 國際開發委員會(International Development Committee)에서 정식으로 提案說明을 하라고 귀띔해 주었다.

1981年11月 ANS 國際開發委員會는 미국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힐튼(Hilton) 호텔에서 열렸으며, 에너지연구소의 李昌健博士가 提案說明을 하였고, 韓國電力에서 成樂正副社長, 昔成煥次長 等 4名이 함께 회의에 參席하였다.

뜻밖에 中共이 事前에 誘致工作을 相當히 하여 強力한 競合者로 나타났다. 多幸히 우리가 準備한 提案說明이 훨씬 잘되고 現實的이어서 IDC는 絶對多數의 贊成으로 제5次 PBNC의 開催地는 韓國 서울로, 第6次는 中共으로 確定했다. 그러나 ANS側에서는 中共과의 미묘한 關係때문에 1982年4月 ANS會長團이 北京을 訪問하여 高位層과 現地打合을 通하여 納得시킨後 歸路에 서울에 와서 1985年 第5次 회의장소를 韓國 서울로 決定하였음을 正式으로 公表하였다.

1982年5月부터 韓國原子力學會와 韓國原子力産業會議가 協力하여 會議準備에 萬全을 期하도록 合議하여 組織委員會를 構成하였다. 組織委員長은 韓電의 副社長이 맡기로 하고, 組織委

員會內에 執行分科委員會, 技術計劃分科委員會, 展示分科委員會와 事務局을 두었다. 組織委員은 原子力學會와 原子力産業會議에서 大體로 半半式 나왔으며, 技術計劃分科委員會에는 學會쪽에서 더 많은 분이 수고를 하였고, 執行分科委員會에는 産業界에서 더 많은 분이 수고해 주셨다.

처음에는 專屬職員 4~5名으로 出發하여 漸次로 會議年度인 1985年이 가까와 질수록 人員을 增員하였으며, 會議가 끝나면 解散해야 하기 때문에 專屬職員은 最少限으로 하고 韓國電力, 韓國電力技術株式會社 等에서 많은 人員을 派遣勤務시켜 주었다. 또 會議 한달 前부터는 臨時職員과 外國語大學에서 通譯要員을 短期로 고용하였다. 國家的인 이 事業에 學界, 産業界, 研究所, 學生 모두가 獻身的으로 奉仕한 結果로 우리가 主管한 서울會議가 어느 會議보다도 越等히 잘됐다는 評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 會議의 準備에 처음부터 關與한 한사람으로서 眞心으로 感謝하게 생각한다.

3. 會議를 마치고 난 所感

1) 成功的이었으며 誘致하기를 잘했다.

● 第1次 하와이(미국), 第2次 도꾜(日本), 第3次 아카풀코(멕시코) 그리고 第4次 뱅쿠버(카나다)에서 과거 네차례 이 會議를 치루었으나, 參加人員이 300名內外였으며, 우리가 主管하기로 된 第5次 서울會議에서는 慾心을 내서 外國人 300名을 포함하여 500~600名은 參加하도록 해야 하겠다고 目標를 세웠는데, 실제로는 外國人이 25個國 및 IAEA에서 523名 參加했으며 內國人을 合하여 1,194名이 參加하는 大盛況을 이루었다.

● 世界 原子力發電所 보유국 및 建設·計劃中인 37個國中 重要西方國이 거의 全部 參加했음을 볼때, 이 會議가 豫想外로 成功的이었다는 評이었다.

● 太平洋沿岸國 原子力會議라는 地域限界를 넘어 非太平洋 國家인 네덜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영국, 벨기에, 스페인, 서독, 프랑스, 스위스 및 IAEA 등 25個國이 參加함으로서 今般 서울會議를 분기점으로 汎世界會議로 格上되었다고 볼 수 있다.

● 特히 中共에서 7名의 參加者를 파견하여 原子力會議를 通한 對中共 交流에 큰 진전을 보였으며, 中共首席代表는 第6次 北京會議에 韓國代表團 招請을 確約하였으며, 이미 第6次 PBNC 기술계획위원회에 우리나라 代表 2名을 委員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自由中國과 中共을 같이 圓滿하게 參加토록 하기 위하여 많은 努力을 한 結果, 兩側 다 큰 不滿없이 參加한 것은 特記할 事項이다.

● 發表된 論文을 보면 原子力發電, 後行核燃料週期, 原子力地域協力, 中小型發電爐, 放射性同位元素와 放射線의 利用 및 原子力 發電所에 對한 기술서비스와 補修 等 6個 分野에 關한 各國의 研究開發, 經驗, 改善方向 等 水準 높은 發表가 있어 世界各國의 현안문제와 이에 對한 對策을 알 수 있었다.

● 世界的인 著名人士가 參席하였고, 그中 몇분은 훌륭한 特別講演을 해주셨다. 參席 著名人士中에는 英國電力公社 總裁 W. 마샬(Marshall)경, 日本原子力委員長代理 무까이보박사(向坊), 美國原子力學會長 J. 헨드리(Hendrie)박사, 中共原子力學會 事務總長 루·광이(Lu Guangyi)박사, 미국 무임소대사 R. T. 케네디(Kennedy)씨, 카나다원자력공사 總裁 J. 도나리(Donnelly)씨, 대만전력공사 사장 D. Chu(朱)박사, 멕시코 원자력위원장 아이벤슈츠(Eibensutz)박사 등 20余名의 世界 各國 原子力界 指導級人士가 망라되었다.

特別講演中 特히 大多數 參加者에게 깊은 印象을 남긴 것은 南 前總理의 "韓國經濟發展의 回顧와 展望"과 마샬경의 "原子力發電의 安全"

에 關한 이야기였다.

마샬경의 說明의 한 句節만 紹介하면 「原子力發電所의 事故에서 오는 危險은 갑자기 死亡하든가, 負傷하는 境遇보다는 오랜 세월을 두고 健康에 害로와 癌을 誘發하는 危險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程度는 "1램(Rem)의 放射線이 健康에 미치는 害毒은 1週日에 담배 한모금(One Puff Per Sunday, 담배 한개피의 1/20이 한모금에 該當한다) 피우는 害毒과 같다"」고 表現했다. 또 그는 「1주일에 담배 한모금은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周圍에서 피우는 담배연기 때문에 都市人의 大部分은 이 程度의 被害를 받고 있으면서 전혀 念慮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재미있고 알기쉬운 表現이라고 생각된다.

原子力發電所 勤務者에 對한 年間 放射線 被曝量이 5램以下로 規定되어 있고, 實際로는 1램以下로 억제하고 있다.

● 參加한 많은 外國人士들은 會議의 準備와 進行이 완벽(Perfect란 表現을 몇번씩 하였음)하였다고 격찬하였으며, 約700名을 收容하는 大會議場이 첫째, 둘째날은 勿論이고 셋째날도 꽉 찼으며, 第4日 마지막 날에도 70~80% 座席이 차 있었다. 過去 PBNC會議때는 셋째날 후반는 청중이 1/3程度로 주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今般 서울會議에서는 異例的으로 最終日까지 參加者가 많았다.

2) 이 會議를 通하여 우리는 自信感을 갖게 되었다.

● 우리나라 原子力界 全體의 實力, 技術的實力 뿐아니라 原子力을 하는 모든 이들이 서로 협력하고 團結된 모습을 우리 自身들도 새삼스럽게 보았으며 또 參加한 모든이들에게 과시했다. 이것은 大會長, 組織委員長의 卓越한 指導와 強力한 支援에 힘입은바 크고, 組織委員會 委員 모두의 獻身的인 協助와 努力의 結果라고 하겠다.

特히 李昌健 博士는 會議誘致에서 會議가 끝날때까지 本職에 많은 支障을 주어가면서 全力을 이 會議의 成功을 위하여 쏟아주셨다.

● 世界的인 著名人士의 特別講演과 26個國代表들의 水準 높은 論文을 通하여 原子力産業의 現住所와 앞으로의 方向을 提示받을 수 있었다.

● 豫想보다 훨씬 많은 外國人士 參加는 準備期間동안 充分한 弘報와 世界的인 巨木들의 特別講演이 있은 點外에 우리나라의 國力과 우리 經濟, 特히 原子力産業의 밝은 展望이 많은 外國人士를 오게 했다고 생각된다.

● 論文發表와 併行하여 會議期間동안 展示館을 열었다. 이것은 第1次에서 第4次會議까지는 없었던 일로 처음 試圖된 것이었다. 처음 걱정했던바와는 달리 7個國 51個業體에서 67個부스(Booth)를 全部 使用하였으며, 約2,200名의 관람자가 모여들어 盛況을 이루었다.

● 우리나라 原子力産業 關聯 機器와 建設·設計用役의 輸出에 寄與코자 하였으나, 우리나라 原子力産業이 先進國에 輸出할 만큼 成長한 分野는 建設·施工 뿐이며, 後進國 乃至 中進國에 目標를 두었으나 이들 나라에서는 海外出張의 規制가 甚해서인지 參加人員이 적어 輸出에 對한 寄與는 目標未達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展示會 自體는 成功的이었으며 收支面에서도 展示部分에서 相當한 黑字를 보여 財政面에서 도움을 주었다.

● 今般 國際會議를 主管해본 經驗을 通하여 앞으로 이러한 國際會議 主管에 對하여 自信을 얻었으며, 財政面에 있어서도 赤字없이 會議를 치르고 有形·無形의 所得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이 會議를 成功으로 이끌어 주신 朴大會長, 李組織委員長, 모든 組織委員 그리고 韓國電力을 비롯한 原子力關聯産業界 여러분께 眞心으로 感謝하는 바입니다.